

15 강 쇠 철장에 갇혀 있는 남자: 타락

해석자는 다시 순례자를 데리고 매우 컴컴한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쇠 철장 안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 남자는 매우 슬퍼 보였다. 그는 땅만 내려다보면서 양 손을 포갠 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한숨을 쉬고 있었다.

순례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석자: 그 남자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순례자: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남자: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순례자: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남자: 나는 내 자신의 눈이나 다른 사람의 눈에도 상당히 훌륭하고 화려한 신앙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천성의 도시에 합당하다고 생각했으며, 그곳에 가야한다는 생각을 할 때 매우 기뻐했던 자입니다.

순례자: 그래요, 그러나 지금 당신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남자: 나는 지금 절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쇠 철장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절망속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절대 빠져 나갈 수 없습니다.

순례자: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 남자: 나는 깨어 있지 않았고, 근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목에 정육의 고삐가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성령을 근심시켰고, 성령은 나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마귀가 나에게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나의 마음은 매우 강박해져서 회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순례자: 소망이 없습니까?

그 남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순례자: 왜요? 찬송 받을 자의 아들은 매우 동정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 남자: 나는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의 인격을 경멸하였으며, 그의 의로우심을 멸시하였습니다. 나는 그분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으며, 성령의 은혜를 모욕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약속으로부터 내 자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공포만이 나에게 남았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공포가 원수같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16 강 마지막 심판의 날

해석자는 다시 순례자를 어떤 방으로 인도하였다. 그곳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덜덜 떨고 있었다. 순례자는 “이 사람은 왜 저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였다. 해석자는 그 남자에게 떨고 있는 이유를 말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그 남자는 말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잠이 들어 있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이 칠흙 같이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나를 괴로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꿈 속에서 구름이 놀라운 속도로 날아갔으며 그 가운데 큰 나팔소리가 나고,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사람과 그를 시종드는 수천의 천사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불꽃 가운데 있었고 하늘은 온통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죽은 자들아! 일어나 심판을 받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들었고, 바위는 터져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매우 기뻐하였고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산 아래도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그때 나는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이 책을 펴고 세상을 향하여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으로부터 강렬한 불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과 사람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과 죄인이 거리를 두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이 시종을 드는 무리에게 가라지와 겨와 검불을 모두 모아서 불 못에 던지라고 선언하는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명령과 함께 지옥이 열리더니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화염이 입구로부터 내가 서 있는 곳까지 나왔습니다. 역시 구름 위에 있는 분으로부터 “내 알곡을 모아 곡식 창고에 두어라” 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구름 위로 들려 올라 갔으나 저는 혼자 남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또한 몸을 숨기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여전히 나를 주시하고 있었으며, 저의 죄가 마음에서 계속 떠올랐고, 나의 양심이 여러 측면에서 나를 고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에서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18 강 왜, 내 신앙은 정체되었을까? 단순, 나태, 거만

십자가를 체험한 크리스찬은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가다가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잠을 자고 있는 세 사람을 보았다.

그들의 이름은 단순,나태,거만 이었다. 크리스찬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혹시 그들을 깨울 수 있을까 하여 소리쳤다.

크리스찬: 당신들은 돛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소. 바닥이 없는 깊은 죽음의 바다가 당신들 아래 있어요. 일어나 이리 오시오. 내가 당신들의 족쇄 푸는 것을 도와 드리겠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오게 되면 당신들은 분명히 마귀의 희생제물이 될 것이요.

단순: “나에게는 위험이 보이지 않아요”.

나태: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자야겠소”.

거만: “모든 것은 각기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요”.

그들은 다시 누워 잠을 자기 시작하였고, 크리스찬은 자기의 길을 갔다.

19. 형식주의자와 위선자

단순,나태,거만으로 인하여 크리스찬의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 있을 때, 좁은 길의 왼쪽 담을 뛰어넘어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의 이름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였다.

크리스찬: 어디서 오는 길이며,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형식주의자와 위선자: 우리는 헛된 영광의 땅에서 태어났소. 그리고 찬양하기 위해 시온 산으로 가는 길ियो.

크리스찬: 왜 이길의 입구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오는 자는 도둑이요,강도”라고 기록된 것을 모르시오?

형식주의자와 위선자: 우리 고장 사람들은 이 길로 들어오기 위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너무 멀다고 여기기 때문에 보통 지름길로 담을 넘어 들어오고 있소. 그들처럼 우리도 담을 넘어 들어온 것이오.

크리스찬: 그것은 주의 도성에 불법 침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겠소? 또한 계시된 주의 뜻을 어긴 것이 되지 않을까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마시오. 왜냐하면 우리 고장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 왔으며, 필요하다면 그것이 천 년 이상 계속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언덕

크리스찬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계속 걸어가 고난의 언덕 기슭에 도착하였다. 고난의 언덕 아래에 샘이 있었으며, 좁은 길에서 곧게 뻗은 길이 있었고, 언덕 아래에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길이 있었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은 좁았으며, 언덕의 등성 이름은 고난이었다. **크리스찬은 샘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힘을 얻었다.** 그리고 언덕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도 언덕 아래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언덕이 가파르고 높은 것을 보고는 언덕 옆에 나 있는 왼편과 오른편의 길로 갔다. 그런데 그 길의 이름은 각각 위험과 멸망이었다. 한 사람은 큰 숲으로 들어가는 위험의 길을 택하였고, 다른 사람은 넓은 들과 어두운 산악 지역으로 빠지는 멸망의 길을 택하였으며, 결국 그곳에서 걸려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20. 정자에서 잠에 빠짐

크리스찬은 고난의 언덕을 달려 올라가다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리고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 언덕이 매우 가파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언덕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중간에 멋진 정자가 있었다. 언덕의 주인이 피곤한 여행자들이 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크리스찬은 정자에서 쉬기로 했다. 자신의 가슴팍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읽어 보고 상당한 위로를 받았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받은 옷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도 크리스찬에게 새로운 힘을 가져다 주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쉬다가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밤이 다 되도록 그 곳에서 잠을 잤고, 여행은 지체되었다. 또한 깊은 잠으로 인하여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두루마리를 떨어뜨렸다. 크리스찬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떤 이가 깨우면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살아가는 방법을 보고, 지혜로우라”고 말하였다. 곧바로 일어난 크리스찬은 산꼭대기에 이를 때 까지 달려 올라갔다.

21 겁쟁이와 의심

잠에서 깨어난 크리스찬이 달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크리스찬을 만나기 위해 전 속력으로 달려오는 두 남자가 있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겁쟁이였으며,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의심이었다.

크리스찬: 무슨 일입니까? 당신들은 지금 잘못된 길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겁쟁이: 우리는 시온 성으로 가고 있는데, 어려운 곳을 만났습니다. 더 나아간다면 더욱 큰 어려움을 만날 것 같아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의심: 맞아요, 바로 우리 앞에 두 마리의 사자가 길에 있었는데, 사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는지 깨어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만약 우리가 가까이 접근하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 버렸을 것입니다.

크리스찬: 당신들은 나를 두렵게 만드는군요. 그러나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야 합니다. 되돌아가면 오직 죽음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엔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 너머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겁쟁이와 의심은 언덕 아래로 달려 내려갔고, 크리스찬은 계속 자신의 길을 갔다.

22 아름다움 궁전

의심과 겁쟁이와 헤어진 후, 크리스찬은 위로를 얻고자 두루마리를 꺼내려고 자신의 가슴팍을 만졌으나 두루마리는 없었다. 크리스찬은 크게 낙심하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할 수 없이 자신이 잠에 빠졌던 정자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두루마리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으나 얼마가지 못해 밤이 되었다.

크리스찬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자신의 앞에 매우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다. 궁전의 이름은 아름다움이었으며 왕의 도로의 길가에 있었다. 크리스찬은 그곳에 머물기 위하여 서둘러 앞으로 나아갔다. 멀리가지 않아서 크리스찬은 매우 좁은 길로 들어섰고, 그 길에서 500 미터쯤 정도에 문지기의 집이 있었다. 길을 가면서 앞을 주의 깊게 살폈는데, 길에 두 마리의 사자가 있었다. 겁쟁이와 의심을 되돌아가게 만든 위험이었다.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였으나, 크리스찬은 쇠사슬을 보지 못하였다. 크리스찬은 두려워하였고, 겁쟁이와 의심처럼 되돌아가려는 생각을 하였다. 왜냐하면 자신 앞에 죽음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지기(그의 이름은 파수꾼이었다)는 자신의 오두막에서 되돌아가기 위해 멈추어 서 있는 크리스찬을 보았다. 문지기는 크리스찬에게 소리쳤다. “당신의 힘이 그렇게도 약합니까? 사자들을 두려워 마십시오.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으며,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이 없는 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그곳에 둔 것입니다. 길의 한 가운데로 오시면 어떠한 해도 입지 않습니다.

23. 신중

문지기는 종을 울렸다. 종소리에 신중하고 아름다운 처녀가 문으로 나왔다.

문지기: 이 사람은 멸망의 도시로부터 시온 산으로 여행 중인데, 피곤하고 날이 저물어서 오늘 밤 여기서 묵을 수 있는 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한 후에 선하게 보이면 이 집의 법에 따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신중은 크리스찬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질문하였고, 크리스찬은 그녀에게 대답하였다. 신중은 크리스찬에게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오는 길에 무엇을 보았고, 만났느냐고 계속 질문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였다.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오늘 밤 이곳에 정말로 묵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언덕의 주인이 순례자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크리스찬의 답에 신중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다.

24 경건, 분별, 자애

크리스찬의 신앙고백을 듣고, 미소를 지으면서 눈에 눈물을 글썽이던 신중은 잠깐 멈추었다가, “내가 가서 가족의 두 세 사람을 데리고 오겠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신중은 문으로 달려가서 경건, 분별, 자애를 불렀다. 그들은 크리스찬과 약간의 대화를 나눈 후에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문지방에서 크리스찬을 맞이하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시오. 이 집은 언덕의 주인께서 당신과 같은 순례자들을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크리스찬은 머리를 숙여 인사하였고, 그들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크리스찬이 들어가 앉았을 때 그들은 크리스찬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저녁이 준비될 때까지 그들 중 몇 사람이 크리스찬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기로 하였다. 그들은 경건, 분별, 자애를 크리스찬과 대화할 사람으로 지정하였다.

경건이라는 처녀는 크리스찬에게 무슨 동기로 순례를 시작하였으며, 어떻게 해서 좁은 길을 택하였는지, 그리고 해석자의 집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질문하였다. 크리스찬은 질문에 대답하였고, 자신의 십자가 체험과 순례의 길에서 단순, 나태, 완고, 형식주의자, 위선자를 만났던 것을 이야기하였다.

다음에 분별이라는 처녀는 크리스찬의 고향과 순례의 길을 떠나기 전에 좋아했던 것과 친구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과거의 죄 된 삶의 유혹이 밀려올 때 어떻게 극복하는 지에 대해서, 시온 산을 향해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질문하였다.

세 번째로 자애는 크리스찬의 가정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왜 가족과 함께 오지 않았으며, 그들과 같이 오기 위한 설득과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25 도서관

크리스찬은 경건, 분별, 자애와 늦은 밤이 되도록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한 다음 잠자리에 들어갔다. 그들은 크리스찬을 해가 뜨는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큰 위층 방으로 인도하였다. 그 방의 이름은 평안이었다.

크리스찬은 날이 새기까지 잠을 잤고, 일어나 노래를 불렀다. 모두가 일어나 약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크리스찬에게 진기한 물건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말하였다.

처음으로 그들은 크리스찬을 데리고 도서관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크리스찬에게 아주 오래된 기록들을 보여 주었는데, 첫 번째로 언덕의 주인의 족보를 보여 주었다. 언덕의 주인은 오래된 시대의 아들이며, 영원 세대로부터 오신 분이였다. 또한 그가 행하셨던 기록들이 가득 있었으며, 그분에게 충성했던 수백 명의 이름들도 있었다.

이러한 기록들은 오랜 세월과 자연의 재해에도 파괴되지 않고 이곳에서 보존될 수 있었다. 처녀들은 그의 종들이 이룬 가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읽어 주었다. 그들이 어떻게 왕국들을 굴복시켰고, 어떻게 의를 행했으며, 어떻게 약속을 얻었고 사자의 입들을 막았으며, 횡포의 불을 끄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며 용감하게 전투에 임해, 적군과 싸웠는지가 기록되어 있었다.

다음에 처녀들은 이 집의 기록들 가운데 다른 부분을 읽어 주었는데, 거기에는 주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가 적혀 있었다. 또한, 여기에는 유명한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26 무기창고

크리스찬에게 도서관을 보여준 다음 날 경건,분별,자애는 크리스찬을 무기창고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그들은 크리스찬에게 주께서 순례자들을 위해 공급하시는 모든 종류의 무기들을 보여 주었다.

칼, 방패, 투구, 흉배, 모든 기도, 영원히 닳지 않는 신이 있었다. 그곳에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모두 무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무기가 있었다. 또한 처녀들은 주의 종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몇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무기도 보여 주었다. 처녀들은 모세의 지팡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했던 말뚝과 방망이,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를 무찔렀을 때 사용했던 빈 항아리와 나팔, 그리고 햇불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처녀들은 크리스찬에게 삼손이 사용했던 나귀 턱뼈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물매와 돌, 주께서 장차 죄인들을 죽이실 때 사용하실 칼을 보여 주었다.

이외에도 많은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크리스찬은 매우 기쁘하였다. 다음 날 길을 출발하기 전에 크리스찬은 무기 창고에서 전신갑주로 무장하였다.

27 기쁨의 산

무기 창고를 구경한 크리스찬은 하룻 밤을 더 묵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길을 떠나려고 하였다. 그러나 경건, 분별, 자애 세 처녀는 크리스찬이 다음 날까지 더 묵고 가기를 원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크리스찬에게 “만약 내일 날이 맑으면 당신에게 기쁨의 산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더 큰 위로를 줄 것인데, 현재 있는 곳보다 천국이 더 가까운 곳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였다. 크리스찬은 동의하고 하루를 더 묵었다.

아침이 되어 그들은 크리스찬을 집의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크리스찬에게 남쪽을 바라보라고 하였다. 멀리 바라보니 가장 아름다운 산과 아름다운 숲, 포도원, 모든 종류의 실과와 꽃, 샘물과 분수가 보였는데 바라만 보아도 기쁨이 넘쳤다.

크리스찬이 그곳의 이름을 묻자, 세 처녀는 그곳의 이름은 임마누엘의 땅이고, 이곳의 언덕과 같이 순례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그곳에 가게 되면 천성의 도시의 문을 볼 수 있으며, 그곳에서 살고 있는 목동들이 보일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28 겸손의 골짜기

크리스찬이 길을 떠나고자 할 때, 분별, 경건, 자애, 신중의 네 처녀들은 언덕의 아래까지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함께 가면서, 언덕 아래에 이를 때까지 이전에 한 대화를 다시 반복하였다.

“올라오는 것도 어려웠지만, 내려가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 라고 말하는 크리스찬에게 신중은 “예,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동행해 언덕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크리스찬은 매우 조심히 내려갔다. 그러나 한두 번 미끄러지고 말았다.

크리스찬이 언덕 아래에 이르렀을 때 네 명의 처녀들은 크리스찬에게 한 덩어리의 빵과 포도주 한 병, 그리고 건포도 한 송이를 주고 떠났다.

벧전 2:2-10

행 4:28-31

벧전 5:6,10

29 마귀 아블루온

검손의 골짜기에서 크리스찬은 어려움에 빠졌다. 왜냐하면 얼마가지 않아서 더러운 괴물 하나가 크리스찬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괴물의 이름은 아블루온 이었다. 크리스찬은 두려워지기 시작하였다. 그의 마음은 뒤로 돌아 설 것인가, 아니면 서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계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자신의 등 뒤에는 보호 덮개가 없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였고, 만약 뒤를 돌아 도망친다면 아블루온에게 큰 이득을 주어서 쉽게 마귀의 화살에 관통될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다. 크리스찬은 용감하게 맞서기로 결심하였다. 자신의 생명을 건져야 하며, 저항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크리스찬은 앞으로 나아가 아블루온을 만났다. 그 괴물은 보기에도 섬뜩하였다. 괴물은 생선같이 비늘로 덮여 있었으며 (이것들은 괴물의 자랑거리였다), 용과 같이 날개가 있었고, 발은 곰의 발과 같았다. 괴물의 배에서는 불과 연기가 나왔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다. 괴물은 크리스찬에게 다가가서 경멸하는 태도로 질문하기 시작하였다.

아블루온: 너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나?

크리스찬: 모든 죄악의 장소인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시온 성으로 가는 중이다.

크리스찬의 대답에 마귀 아블루온은 크리스찬이 자신의 종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로 돌아간다면 후대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아블루온은 크리스찬에게 순례의 길을 계속 나아간다면 더욱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공갈하였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계속 마귀의 말을 듣지 않자, 아블루온은 크리스찬의 약점을 드러내서 하나님에게 불충성한 일들을 가지고 참소하였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저항하였다.

마침내 마귀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불 붙은 창을 크리스찬의 가슴을 향해 던졌다. 크리스찬은 머리와 발과 손에 부상을 입으면서 거의 반나절 동안이나 전투를 계속 하였다. 크리스찬의 힘이 약해졌을 때 마귀가 더욱 세차게 공격하자 크리스찬은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놓쳤다. 마귀는 크리스찬을 마구 짓눌렀고, 크리스찬은 거의 죽은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마귀가 마지막 공격을 하려 할 때 크리스찬은 칼을 다시 잡아 찔렀다. 마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도망갔다.

<참조구절> 유 9 절, 계 12:5-8, 요일 5:4-12, 딤후 4:7-8, 시 119:67,71

30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가 끝나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골짜기가 나타났다. 크리스찬은 반드시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 왜냐하면 천성의 도시로 가는 길이 골짜기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골짜기는 매우 외로운 장소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골짜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렘 2:6). 크리스찬은 이곳에서 아블루온과 싸운 것보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참조 구절>

창 46:1-4, 창 50:24-26, 창 32:24-30, 시 105:9-19, 시 23:1-6

31. 믿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 나온 크리스찬은 언덕을 만나게 되었고,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 언덕은 순례자들이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곳에 올라가 앞을 내다보니 믿음이라는 자가 순례의 길을 가고 있었다.

크리스찬은 “이봐요! 기다리세요. 제가 당신의 동무가 되어 드리겠소” 하고 소리쳤다. 그때 믿음은 뒤를 돌아 크리스찬을 바라보았다. 크리스찬은 다시 소리쳤다. “기다려요, 기다려요, 제가 당신에게 이를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러나 믿음은 “안 됩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피의 복수가 내 뒤에 있어요” 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자 크리스찬은 약간 마음이 흔들렸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재빨리 믿음을 따라잡았고, 믿음보다 앞서게 되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것이었다. 그때 크리스찬은 헛된 영광의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형제를 이겼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걸음을 주의하지 않아서 갑자기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 믿음이 와서 도움을 주기 전까지 일어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사이 좋게 길을 가게 되었고, 그들은 순례의 길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믿음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된 배경은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난 후 자신도 멸망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살후 3:2

고전 9:24-27

딤후 4:1-8

32 첫 사람 아담

1) 믿음은 고난의 언덕에서 당한 시험에 대해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믿음: 제가 고난의 언덕이라 부르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매우 늙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제가 무엇을 하는 자며, 어디로 가시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순례자이며 천성의 도시를 향해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 그러자 노인은 “너는 정직한 친구같이 보이는데, 내가 주는 **값으로 만족하면서 같이 살지 않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의 이름과 사는 곳을 물어보았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이름이 **첫 사람 아담**이며, **기만의 도시에 산다**고 대답했습니다.

3)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는 일은 무엇이며, 일한 것에 대해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노인은 많은 쾌락의 일을 하며, 일에 대한 값은 결국 노인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집에서 살며, 다른 종들은 얼마나 있느냐고 더 물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집에서는 세상의 맛있는 것들을 계속 먹을 수 있고, 종들은 자기 자신의 자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불리는 **세 명의 딸이 있는데, 제가 원한다면 그들 모두와 결혼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저와 오래 살기 원합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자기가 살아 있는 한 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찬: 그래요, 결국 노인과 당신은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까?

믿음: 그야 물론 처음에는 제 자신도 어느 정도 노인과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매우 공정하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노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의 이마에 “**그의 행위와 함께 옛 사람을 벗어 버려라**” 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리스찬: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하였습니다?

믿음: 그러자 노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가 나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종으로 팔아버릴 것이라는 생각이 나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는데, 왜냐하면 그의 집의 문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저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의 가는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뒤따라 보낼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기 위해 돌아섰을 때, 노인은 제 몸을 붙잡고 등을 세차게 잡아 당겼는데,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소리치면서, 얼른 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신 5:12-13, 요일 2:15-17, 롬 14:23

33 불만

크리스찬과 믿음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크리스찬: 겸손의 골짜기에서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습니까?

믿음: 불만이라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 자는 자기와 함께 돌아가자고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불만은 자신이 돌아가자고 하는 이유는 이 골짜기에서는 영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골짜기로 가는 것은 교만, 오만, 자기기만, 세상영광과 같은 저의 모든 친구들에게 불순종하는 것이고, 불만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매우 화나게 만드는 것이며, 제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크리스찬: 그래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믿음: 불만이 말한 것이 맞을지라도,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에 육신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순례자가 된 이후 저는 그들을 거절하였고, 그들도 나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저는 불만이 겸손의 골짜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에 앞서서 겸손이며, 멸망에 앞서서 교만”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골짜기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 구절>

신 8:1-10, 민 21:4-9, 신 4:32-35, 요 20:24-27, 창 22:1-17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4-15)

34 수치

크리스찬: 그 골짜기에서 다른 사람은 만나지 못하였습니까?

믿음: 수치라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 자는 저의 순례의 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중 가장 잘못된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약간의 논쟁을 한 후에 마음을 돌이키지만, 뻔뻔한 얼굴을 하고 있는 수치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 그래요? 그 자가 당신에게 무엇이냐 말하던가요?

믿음: 말도 마세요. 그 자는 종교자체를 반대하였습니다.

- 1) 사람이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한심하고 천하며, 비열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양심은 남자답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순례자들의 대부분이 천하고 낮은 신분이라고 하면서 반대하였습니다.

눅 24:13-21

막 8:34-38 // 고전 1:18-19,25-29

- 2) 수치라는 자는 저에게 설교를 들으면서 괴로워 우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수치는 종교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는데, 종교는 천한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였습니다.

35 수다쟁이 (2)

수다쟁이가 떠나가자 크리스찬이 믿음에게 다가와 이야기했다.

크리스찬: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의견과 그 사람의 탐욕은 일치할 수 없었소. 결국 그 수다쟁이란 사람은 자신의 생활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당신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떠났군요. 사도들도 말했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선 돌아서라고 말입니다.

믿음: 제가 저 사람과 말한 것이 정말 잘했구나 생각돼요. 언젠가 그가 오늘 일을 생각한다면 그의 생활을 돌이킬지 모르니까요. 내가 그토록 알아듣기 쉽게 말해 주었으니 그 사람이 멸망한다 하더라도 내겐 책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렇게 분명히 말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오늘 날 교회에서는 말만 앞세우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욕을 먹고 또 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좌절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자들에게는 명백하고 진실된 기독교를 가르쳐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그들도 좀 더 제대로 행함이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경건성에 부담을 느껴 거룩한 사람들과의 사귄에서 떠나든지 할 테니까요.

35 수다쟁이

크리스찬과 믿음의 길을 가다가 한쪽을 보게 되었는데,

수다쟁이라는 자가 약간 떨어져서 그들 옆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곳은 그들 모두가 걸어가기에 충분히 넓은 곳이었다. 수다쟁이는 키가 크고 가까이 보는 것보다 멀리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잘생겨 보였다.

믿음이 수다쟁이에게 말을 걸었다.

믿음: 친구여,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도 천성의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까?

수다쟁이: 나도 그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음: 이것 잘 되었군요. 우리가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진정으로 선한 뜻을 가지고 제가 당신들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믿음: 그러면, 자 이리로 오시오. 서로 같이 갑시다. 유익이 되는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합시다

믿음은 수다쟁이의 말에 탄복하였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수다쟁이의 정체를 알려주자,

믿음은 수다쟁이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의 표식들이 있는지를 살피게 되었다.

마 23:1-7

고전 4:19-20

시 119:33-34